

포스코, '철강산업 리더십' 최우수 기업 선정

어려운 환경서 양호한 실적·미래먹거리 발굴

포스코가 30일 발표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 플라츠의 '글로벌 메탈 어워즈'에서 철강산업 리더십부문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당초 런던에서 글로벌 금속산업 관련 기업과 원료설비공급사, 원자재트레이딩, 주요인르사 등 100여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던 이날 시상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행사로 대체됐다.

글로벌 플라츠는 철강, 원자재 및 에너지 분야의 세계 최대 정보분석 기관으로, 신용평가기관 S&P Ratings, S&P500 지수를 운영하는 Dow Jones Indices 등을 보유한 글로벌 금융서비스 기업 S&P 글로벌의 자회사다.

플라츠는 2013년부터 '글로벌 메탈 어워



즈'를 통해 전세계 철강을 포함한 금속산업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철강산업 리더십, 알루미늄산업 리더십, 원자재 리더십, 기술 혁신, 사회공헌 등15개 부문에서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글로벌 메탈 어워즈는 타기업 및 기관 추천 또는 자체 지원을 통해 접수된 기업들을 대상으로 각 부문의 최종 후보를 선정 후, 철강, 원자재 트레이딩, 시장분석 기관의 전직 CEO 등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

단의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발표한다.

포스코는 지난 5월 철강산업 리더십, 사회공헌, 기술혁신 등 3개 부문에 걸쳐 최종 후보로 선정된 가운데, 이날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철강 시장 악화 등의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경쟁사 대비 양호한 경영실적을 달성한 점을 높게 평가받아 '철강산업 리더십' 부문을 수상했다.

포스코의 이번 글로벌 메탈 어워즈 수상은 지난 2018년에 이은 두번째로, 이 상을 받은 국내기업은 포스코가 유일하다.

플라츠는 포스코가 월드톱프리미엄 제품 1000만 판매 및 원가절감 활동인 CI(Cost Innovation)2020추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생산체계 구축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견고한 실적을 시현하였으며, 이차전지소재사업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도 힘쓰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우리 동네 집값은?



기자 수첩

정연우 (파이낸스&마켓부)

“우리 동네 집값은 어떻게 될까?”

6·17 부동산대책이 발표됐을 때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었다. 정부는 두 달에 한 번씩 규제책을 내놓고 있는 데 집값은 오르고 있으니 이상할 만도 하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전 국민이 부동산 전문가가 됐다.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온 국민이 부동산 정보 사이트를 검색하며 분석하고 온라인상에서 투자 전망에 대해 토론하는 것도 익숙한 풍경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는 인천을 비롯한 고양·군포·안산 등 수도권 10개 지역과 대전·청주 등 지방 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로는 인천 연수구·남동구·서구와 구리, 군포 등 17곳이 새롭게 지정됐다. 수도권 전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인 셈이다.

정부가 시행하는 고강도 규제가 과연 집값을 잡고 있는 지의 문이다. 12·16대책, 6·17대책 등

급격한 규제가 나올 때 마다 시장은 잠시 관망세를 보이는 등 소강 상태를 보였을 뿐 이내 활로를 찾아 상승세로 이어졌다. 부동산 정책에도 내성이 생기는 듯 하다.

두더지잡기식 대책 마련도 문제점 중 하나다. 규제지역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 일대 아파트 매매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황급히 이들 지역도 모니터링 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했다.

터지면 막는 식의 뒷북 정책이 또 다른 풍선효과만 낳고 있다. 국가 정책은 백년을 내다보고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22번째 대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취임 3주년을 맞았다. 김 장관은 재임기간 내내 대규모 정책을 발표하며 집값과 전쟁을 치렀다. 오는 9월까지 장관직을 유지한다면, 최장수 국토부 장관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집값을 잡기 위해 총선도 포기한 그가 성공한 국토부 장관으로 남길 바란다.

그렇다면 잠시나마 규제가 아닌 자유로운 시장 흐름에 맡겨 보는 것은 어떨까? 계속되는 규제책은 국민을 지치게 할 뿐이다. /ywj964@

SKT, 한국서비스품질지수 21년 연속 1위

ICT 접목·고객맞춤형 서비스

SK텔레콤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20년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조사에서 이동통신부문 21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2000년 KS-SQI 조사 시작 이래 21년간 연속으로 1위를 유지한 경우는 SK텔레콤이 유일하다.

KS-SQI는 국내 서비스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해 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에 대한 만족 정도를 측정해 계량화한 지표다.

SK텔레콤은 올해 조사에서 서비스품질 지수 점수가 75.4점으로 2019년 대비 0.6점이 상승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이

격화되면서 업계 최초로 콜센터에 재택근무를 도입했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24시간 고객의 문자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AI상담사 '채티'(챗봇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며 운영 중이다.

고객상담에 ICT 신기술을 접목하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유통망 등에서의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이 수준 높은 고객 서비스로 이어져 이번 KS-SQI 조사에 긍정적인 작용했다는 평을 받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

오늘의 운세 7월 2일 (음 5월 12일) http://www.saju4000.com

- 36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후회하지 않는다. **48년생** 버틸 수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다. **60년생** 구름 위를 걷는 듯 행복한 하루. **72년생** 어제 잘못을 오늘 또 되풀이. **84년생** 밖은 전쟁터이니 이직은 신중하게 해라.
- 37년생** 나이드는 사람의 저력을 보인다. **49년생** 당장 고쳐야 할 것을 방치. **61년생** 남에게 준 상처는 나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73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돌리는 법이니 꾸준히 노력. **85년생** 광기와 천재성의 거리는 성공으로 측정.
- 38년생** 간절히 기도하면 하늘도 움직인다. **50년생** 졸작이라도 내 작품이니 흐뭇하다. **62년생** 일회일비하지 말고 마음을 차분히. **74년생** 말은 별기 쉬워도 주워담을 수 없으니 조심. **86년생** 희망은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39년생** 도장 찍을 일이 있다면 오늘이 그날. **51년생** 입이 경솔하면 주변이 시끄럽다. **63년생** 열을 가는 꽃이 없으니 자만하지 마라. **75년생** 뒤돌아보지 말고 전진하다 보면 성과가 있다. **87년생** 잠시 내용보다 포장이 신경 써라.
- 40년생** 시작이 좋으니 마무리도 신뜻하다. **52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64년생** 태양은 항상 그 자리에 떠 있음을 명심. **76년생**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고 지출한다. **88년생** 어항 속 물고기처럼 답답한 하루이다.
- 41년생** 숫자 6, 흰색이 오늘 행운을 준다. **53년생** 가까운 친구의 병문안을 가게 된다. **65년생** 혼자만의 시간이 절실히 필요하다. **77년생** 생각만 하고 시작하지 않으니 변하는 것도 없을 것. **89년생** 선황을 행하니 열배로 돌아온다.

- 42년생**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안타깝다. **54년생** 큰 독도 작은 구멍으로 무너짐을 명심. **66년생**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 **78년생** 열차여행을 떠나 보는 것이 좋겠다. **90년생** 상대의 속이 흰히 들여다보이나 양보해라.
- 43년생** 마음 아픈 소식이 들려온다. **55년생** 숨은 실력을 자랑할 기회가 주어진다. **67년생** 주머니 속 송곳처럼 창의력이 빛을 발한다. **79년생** 헛된 욕심이 화를 부른다. **91년생** 배우자에게 기대가 너무 커서 서운함을 느낀다.
- 44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더 커지게 된다. **56년생** 자녀와 교감을 가져라. **68년생** 당신 손안에 이미 열쇠는 있다. **80년생** 당장은 부족해도 꾸준히 노력. **92년생** 이성에게 필요 이상의 의미 부여는 상황을 왜곡 시킨다.
- 45년생** 마음에 없는 칭찬은 차라리 하지마라. **57년생** 남이 던져주는 희망에 기대가 크다. **69년생** 머리가 맑고 기분이 즐겁다. **81년생** 작은 실수는 덮어 주는 것이 나에게 유리. **93년생** 가야 할 길은 멀고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는다.
- 46년생** 가족에게는 양보해도 괜찮다. **58년생** 자식이 짝을 데려오니 마음이 흐뭇하다. **70년생** 구정물에 발을 담그면 더러워지기 마련. **82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중 쓰지 마라. **94년생** 가족도 서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 47년생** 구슬수를 조심하고 특히 옆집과의 대화에 주의. **59년생** 밑 빠진 독에 물 붓고 있지 않으니 체코. **71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83년생**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능력을 최대한 발휘. **95년생** 자존감을 자신을 지켜주는 힘.



김상회의 4시

인정육구 강한 사주

성격을 보다 보면 감성이 풍부한 사람들도 있고 무뎠거나 매 다른 사람도 있다. 감성이 풍부한 사람은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도 많다. 무뎠거나 사람은 사람이 진국이네 라는 소릴 듣기도 한다. 한 사람의 성격도 상황 따라 나타나는 것이니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이러한 점을 살핀다면 실망을 줄일 수 있다. 번덕이 심한 경우 주변을 피곤하게 하고 게다가 일주에 백호 살이나 괴강이 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면 주변 사람들은 그야말로 마고고생이 이만 저만이 아니며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트럼프대통령도 백호가 들어 있어 막말로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데 둘째가라 하면 서운할 지경인 것이다. 게다가 자화자찬을 즐긴다.

최근에 상담을 온 어느 아가씨는 상담의 내용을 들어 보니 주변에 대한 원망으로 회사를 옮길 것을 고민하고 있었다. 괴강 년주에 을미(乙未) 일주였는데 지지의 신살(神殺)을 보아 하니 재살과 백호살이 자리 잡고 있었다. 처음 보면 이해심 많고 사근사근해 보이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자기주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 또한 강한 사람임을 감출 수가 없다.

스스로 매우 예리고 착하다고 여긴다. 실제 여러며 인정육구도 강한테 좋은 소릴 들으니 주변 사람들이 모두 문제인 것으로 여긴다. 자신이 얼마나 희생하며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하다는 말은커녕 오히려 원망을 하더라는 얘기가. 이런 경우를 두고 인덕이 박하다는 얘길 한다. 자신이 해줬지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기애와 인정육구가 강한 사람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아도 먼저 나서서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하나를 해주고도 셋을 해줬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는 시작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토쿠365

문제풀이: 3X3 스토쿠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3X4 몬스터스토쿠는 가로세로, 3X4 박스에 1부터 9, A, B, C의 숫자, 영문이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정답

	9	6			4	5	
	6	7	A		C	2	
8		4	C		3	B	
	2	B	8	7	1		
3	1	C		6	A		
A	5		9	2	C	8	
	C	2	4	7		5	6
		B	5		2	C	8
3	A	6	1		B		
A		5		2	1		9
B		2		A	4	6	
4	7			6	3		

하루에 한 장 기적의 두뇌퍼즐

결합형 스토쿠 사무라이스토쿠 시리즈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s://sudoku365.net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장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47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582호